

お名前 () さん

화산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던 유럽의 하늘 길이 절반 정도

열렸습니다만, 한국행 승객 상당수는 여전히 유럽에서 ‘노숙’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 공항 곳곳에는 피곤에 지친 한국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